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하나에 달렸죠”



1981년 동해 김홍사에서 태고종 분원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종학스님.

아무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자유자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0여년간 이 곳 옥천사에서 셀 수 없는 불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

(德)은 경양에서 생키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키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즉 눈과 입을 특히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에서 생겨요”

자제입니다.

일전에 강원도 군부대 군법당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조금 밖에 보조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아주 훌륭한 법당이 세워졌습니다. 군단장의 원력과 순전히 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불법이 움트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법을 구하는 데는 오직 바른 마음으로 참된 길을 수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불법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로 인하여 중생도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하루빨리 참되고 지혜롭고 어질게 마음을 닦아서 원만하고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방법은 다 생각이다. 어려서 어두운 중생이다

일개 암자에 불과했죠. 신도도 30여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00여명의 신도들이 신령산 도량에서 신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법당을 세웠던 마음과 제가 이 곳에서 불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60여년 이상 절법을 먹었던 노스님과 군인 불자들의 마음이 같다는 것은, 깨달음이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행동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닙니. 그러니 정신을 항상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경지에 들어서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한없이 맑아져서 본래 자기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촛불도 제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자리라고 알려주지만 이것을 모르고 감각 절벽을 더듬거리며 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아니고, 사상도 신앙도 아니면서 다만 우리 개개인 속에 살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신심이지요. 또 경계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시공을 한꺼번에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천사를 찾았을 사람들은 항상 내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못 찾더라도 내 마음자리가 부처인데 한 번 찾아보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속세로 내려가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화엄경》은 “불법은 항상 다니며 먹고 놓고 자고 앉고 머무르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곳에 모두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불법이 있지만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 들을 수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뜻을 나타내 보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은 이 몸이 생길 때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임종을 맞을 때까지 이 곳 옥천사에 있을 것입니다. 매일 신령산의 아침을 열고, 또 하루를 담으며 나고 말함이 없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불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천명일

(부산 설원장)

불자라면 마땅히 종교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말씀인 《천수경》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지당하다. 그런데 나는 일반 불자 독송집에 있는 《천수경》만 잘 외우면 되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경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무조건 따라나만 입으로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암기력만 자랑하며 청산유수로 염불만 고집했다. 이것이 최고의 실행생활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외운 다라니 덕분에 세상을 별 어려움 없이 신선처럼 복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불교대학에서 《천수경》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저 별 생각이 가볍게 “네, 그러지요”라고 대답했다. 《천수경》강의

그 뜻을 알기 힘들다. 《천수경》 번역서는 많이 나와있다. 나와 같은 신학의 그릇된 길을 똑같이 밟게 하지 않으려고 《천수경》을 새롭게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원전을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시작했다. 다만 절에서 배놓을 수 없는 심해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도설한 원이상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명했다. 그밖에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루었다. 이렇게 해서 “깊은뜻이 담겨 있는 《천수경》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나는 주로 염불기도를 주요 수행으로 생활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염불기도에서 일어나는 맑은 의식은 불교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선사들의 법문을 읽고부터

천수경 외우고 뜻 새기며 신심다져 망집 벗어나려고 매순간 마음 단속

좁아야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경문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잠시 마음을 가드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병적으로 경솔한 어리석음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그



다. 불교의 근본부리는 깨달음이다.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정신작용의 감성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하는 감성작용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

리고 이 경을 처음부터 훑어가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천수경》을 해설해 가면서 느낀 것은 이 경이 알기쉬운 경전도 아니니와 실은 뜻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비로운 경임을 알게 됐다. 오로지 굳건한 믿음을 하나로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의 경이며 그 비법은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신비로운 가르침에 감히 누가 무슨 뜻을 더하고 빼겠는가. 그래서 《천수경》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심을 느낄 수 있는 소견을 최대한 부처님의 지견에다 맞추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강의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들은 거의 다 인도 교대로 적은 것을 중국에 와서 뜻글자인 한자로 의역한 경문이다. 때문에 한문경전을 일반 번역문처럼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 아니다. 우리가 평소 몰랐던 사실을 뜻밖에도 알게 되는 지각과 몸으로 느낀 감각이나 육감으로 의식하는 영감 같은 것을 깨달음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식의 반대인 무의식한 무감각을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양면성을 전체로 깨달는 전지전능한 각성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데는 두가지 근본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중 하나가 시도때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하늘의 구름과 같은 마음을 자성이라 고집하는 망집이다. 나는 항상 일어설려는 망집을 없애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정진한다.

나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 터득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외우기만 해도 누구나 본모자를 덮고 있는 억척생사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청정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불심은 몸과 마음으로 익힌 선한 도리 남의 허물 보지말고 나부터 청정하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규스님은 젊은 학생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했는데, “불심은 곧 중생이 행해야 하는 선(善)한 도리”라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이것을 수행자로서 마음과 몸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한량 없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고통을 덜어주고 심판과 친철함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 불자들의 불심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또 인연을 따라 멸한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은 인류의 대도(大道)이며 우주법계의 광명(光明)”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福)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항상 써야 하며 어질고 착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고 잘못된 이를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의 대우를 바라지 않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아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도리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어렵고 모르는 것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불자들이 행해야 하는 도리는 신(神)을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자기 마음을 대상으로 모르는 것과 의문되는 것을 바르고 밝게 깨닫고자 행하는 그

깨달음이 크면 부처이다

사람의 마음 자성은 영원한 것이며 변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성이 완전히 맑고 원만할 때 더럽고 한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여 생사윤회를 초탈한 불성불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선하고 참된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옥천사는 강릉시 옥계면에서 유일한 절입니다. 이곳에서 30여년간을 살면서, 조석에불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더 급하다 싶은 다른 불사를 앞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도리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옥천사는

Advertisement for 'Sinsik Gyeongjeong' (心食 鏡淨齋)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health and spiritual benefi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2-3437-8282.

Advertisement for 'AMT' (Auto Memory Tape) for English learning. Features the AMT logo and text: '완전 초보에서 60살에 영어회화가 슈창해진다?'. Includes contact: 051-861-7705.

Advertisement for 'Hwangto Hyeombeol Gije' (황토 흙벽돌 기계) for making earth bricks. Includes a photo of a brick machine and text: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Contact: 0671-634-0223.